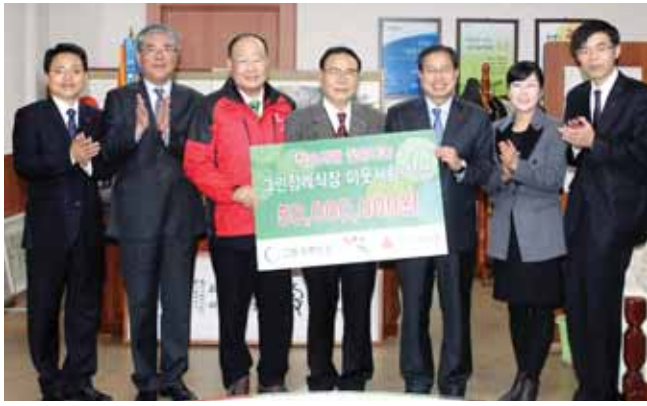


여수 한려동주민센터 사랑의 연탄 2000장



여수시 한려동주민센터는 최근 수정동 소재 여수항도선사(회장 안용수)가 기탁한 연탄 2000장을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차상위 가구 등 10가구에 전달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그린장례식장 복구에 이웃돕기 5000만원



(주)그린장례식장(회장 김영관·왼쪽 네 번째)은 지난 21일 복구청을 찾아 성금 5000만원을 송광운 청장에게 전달했다. (광주복구청 제공)

화순전남대병원 '난치성질환 완치 잔치'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국훈)은 최근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성질환 완치 잔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부터 올해 대학입시에 합격한 청년에 이르기까지 47명의 완치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김승식 강진신탁 이사장 장학금 500만원



김승식 강진신탁 이사장이 최근 강진이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 강진신탁 정기총회에서 강진군인정학재단(이사장 강진원)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강진군 제공)

밀랍초로 전원생활의 행복을 켜줍니다

담양 '귀화 외국인 1호' 옥천골 공방 독일 출신 빈도림 씨

담양군 대덕면 옥천골 공방에서 이들도 생산한 '밀랍'으로 초를 만드는 부부가 있다. 한국학을 전공한 독일 출신 빈도림(60)씨와 부인 이영희(55)씨다. 빈씨가 이곳에 자리한 지도 벌써 17년이 됐다. 담양군 '귀화 외국인 1호'로 최근 '2015 세계대나무박람회 추진위원장'까지 맡을 만큼 담양과는 인연이 깊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빈씨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조선시대 미술품을 접한 후 그 아름다움에 심취했다고 한다. 관심은 한국이란 '나라'로 이어졌고, 대학에 입학해서 동양학을 전공하게 됐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한국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점이 많아요.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서울대에 편지를 보냈고, 3년 동안 국문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독일로 돌아간 그는 모교에서 한국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을 다시 찾았다. 한국에 살고 싶다는 단순하지만 강한 욕구 때문이었다. 대구 효성여대 독일어과 교수를 거쳐 독일 대사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를 하던 중, 친구로부터 담양을 소개

받은 그는 주저 없이 이곳을 택했다. "담양은 서울·대구 등 대도시 주변 시골과 달리 조용하고 깨끗해요. 자연 그대로 순수한 느낌을 받았죠. 살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미리 사놓은 땅에 집을 짓는 것은 설계부터 건축까지 빈씨가 맡았다. 텃밭을 일구는 일은 대사관 시절 결혼한 아내와 함께했다. 부부는 이곳에서 독일어를 번역하며 자급자족의 전원생활을 즐겼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한봉업자를 만나게 됐다. 그게 밀랍초와 인연의 시작이었다. 밀랍은 벌집을 이루는 주성분이다. 당시만 해도 파라핀 양초에 밀러 제작방법조차 이어지지 않은 때였다.

"꿀을 빼고 남은 벌집을 모두 버리는데 아깝잖아요. 직접 독일까지 건너가서 공방을 견학하며 밀랍초 만드는 법을 배우고 왔어요."

단조로운 번역작업에 지친 그에게 초를 만드는 '창조적인' 일은 삶의 즐거움을 선물했다. 캄캄한 밤이 되면 그의 집은 촛불로 가득 찬다. 빈씨는 "다 만든 초에 불을 켜면 그 분위기와 안정감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할 만큼 밀랍초의 매력에 푹 빠졌다.



처음엔 부부의 만족을 위해 만들던 밀랍초는 입소문이 나면서 공방으로 발전했다. 이곳에서 밀랍초 제작방법을 배우 나간 사람도 부지기수. 마니아층도 형성됐고, 종교시설과 예식장 등 대량 납품할

거래처도 생겼다. 빈씨는 "밀랍초를 통해 한국의 여러 사람을 알게돼 너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밀랍초 만드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5년간 차 4천대 팔아 지역 첫 '판매 명인'

현대차 목표 안광혁 부장

"오늘·지금"이라는 말을 좌우명 삼아 오직 한 가지를 위해 '열인' 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자동차 4000여대를 팔아 광주·전남 최초로 '현대자동차 판매 명인'에 등극한 안광혁(50·목포 하당지점) 부장은 '세일즈맨의 전설'이 된 비결을 이렇게 밝혔다.

"지독한 불행에도 매일 매일 온 힘을 다하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안 부장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지식과 정직으로 무장한 8할의 도전정신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1987년 현대차에 입사한 그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남다른 열정을 발휘해 1991~97년 까지 전국 월간 판매 왕을 10여 차례 차지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다. 98년에는 1500대, 9년 뒤인 2007년 3월엔 3000대를 넘어서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전국 17번째로 판매 명인에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마침내 누적 판매량 4000대를 넘어선 자들에게 수여되는 '판매 명인'에 등극하며 전국에서 7번째로 현대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동료들은 "25년 동안 이틀에 한 대씩은 계속 팔아야 하고, 금액으로는 매월 2억 2500만원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라며 "목포시가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안 부장이 달성한 4000대 판매는 더욱 빛이 난다"고 평가했다.

그는 "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다 세일즈맨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평소 인맥관리에 남다른 심혈을 기울인 덕택"이라고 겸손해 했다.

실제로 그의 인적 네트워크는 광범위하다. 종친회, 동창회, 부부산악회, 골프 모임, 배드민턴 동호회 등 한 달에 23개의 다양한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단순히 등록 회원에 그치지 않고 회장도 나서서 맡아 모임을 이끌기도 한다. 그런



만원을 '디아코니노 노인 요양원' 등 불우이웃에 기부한 안 부장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기부의 명인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o@kwangju.co.kr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내일 DJ센터 신년회

나신영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23일 오전 10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여성을 위한 발전, 모두를 위한 진전'이라는 주제로 2013년 광주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를 갖는다. /이보람 boram@kwangju.co.kr



김중채 광주향교 모성회 22대 회장

김중채 (사)임방울국악 진흥회 이사장이 광주향교 모성회(慕聖會)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서재필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 선임회장은 지난 10년간 성균관 전, 전남, 광주향교의 등으로 활동하면서 향교 발전에 공헌해왔다. 취임식은 22일 오전 11시 광주향교 유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



'26년' 최용배 대표 '올해의 영화인'상

영화 '26년'의 제작자 최용배(50) 청어람 대표가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영화인'상을 받았다. 한국영화기자협회(회장 김호일)는 '제4회 올해의 영화인' 투표 결과 특별상 부문의 '올해의 영화인' 수상자로 최 대표가 선정됐다고 21일 전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수년간 어려움을 딛고 완성해 300만 명이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며 성공을 거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연합뉴스



내방

▲나상욱(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씨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학교별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고·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김형운)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22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상록회관 4층 062-361-2680.

총친회

▲전주리씨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회 1월 월례회 및 신년 단배식=26일(토) 오전 11시 벽오동보리밭식당(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062-381-001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장애이동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 =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우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친환경영농사업단은 고연령, 저학력, 무기능자 중에서 농사에 경험이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농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제조식품의 판매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전문 영농인으로 거듭나며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정고객 및 자체 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무료 알코올상담 =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광주요양알코올

상담센터 062-526-3370, 510-3370. 모집 ▲2013 취업아카데미 연수생 =광주·전남 대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매주 토요일 취업역량강화교육 진행, 지역산업실무, 금융영업실무, 생산관리품질경영, 영업마케팅과정의 전문교육 실시. 모집기간 2월 6일(수)까지(사)인 재육성 아카데미 (www.gimyjjob.com) 062-224-7733, 1. ▲'함께 안아주세요! 함께 키워주세요!' 가정 위탁! 위탁부모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두암동 청년회원 =두암동에서 거주하시는 참신한 청년회원을 모집 010-8542-3366(홍보국장). ▲한국노후생애대학교 6기 학생 =교육과정은 노후생애설계, 생활영

어(여행영어), 한시(한문), 웃음(건강)치료, 노인상담심리학, 원서접수는 14일(월)~ 2월15일(금) 오후 5시 까지 062-223-1357, 010-2646-5023. ▲오치 배드민턴 클럽 회원 =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 =오후 7시30분~10시30분까지 문산초·중 학교 체육관 010-3624-2141. 부음 ▲이심택씨 별세 문복(해남지점)·문관(가야자동차)·문식(부산지점)·문학(서울남부지점)·문오씨 부친상 =발인 23일(수) 조산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병우(전 전남대의대 학장)씨 별세 치균(남부대 교수)·대호(삼성화재 부장)씨 부친상 조현중(국립광주박물관장)씨 빙부상=발인 23일(수)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20-5049.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曠 南 公 (여/85세) 子/子婦: 인종해, 종권, 재국/재영 女/婿: 인질순/송두현, 유복/문희재 *특실: 301호 *발인: 1월 23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2	故 이말래 (여/85세) 子/子婦: 방문학, /송은숙, 민학/최옥순 女/婿: 방민태, 방주환, 세훈, 정수 *호실: 402호 *발인: 1월 22일 *장지: 순천 송림영 *연락처: 227-4314
故 김민철 (남/55세) 子/子婦: 김형수/최현숙, 민수 女: 김민애, 未亡人: 이선자 *호실: 101호 *발인: 1월 22일 *장지: 화순 이양 성영 *연락처: 227-4386	故 송경자 (여/66세) 子/子婦: 차경민/최은숙, 경수/박정숙 未亡人: 송진숙 *호실: 102호 *발인: 1월 22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故 김인철 (남/50세) 子: 김승운현 未亡人: 허민선 兄: 김유택, 양숙, 성희서복 *특실: 201호 *발인: 1월 22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